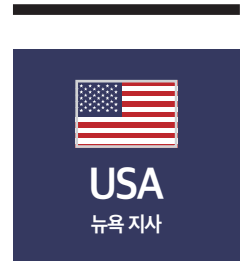


미국, 글로벌 푸드 시장 트렌드 분석



미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 문화가 모이는 중심지로 여겨져 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혼합 문화는 미국 문화 전반에 녹아들어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주의 기조는 식문화를 반영하는 식품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 인구 구성 비율에서 White(백인)을 제외하고는 Hispanic(히스패닉)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으며 Asian(아시아인)은 5.9%를 차지하고 있다.

[인종과 히스패닉 구성]

인구추계, 7월 1, 2019 : 328,239,523명

| 인종 | 비율 |
|-------------------------|-------|
| 백인 | 76.3% |
| 백인(앵글로아메리칸) | 60.1% |
| 흑인, 아프리카계 | 13.4% |
|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 1.3% |
| 아시아인 | 5.9% |
| 하와이, 태평양 섬 원주민(아시아계미국인) | 0.2% |
| 혼혈 | 2.8% |
| 히스패닉, 라틴아메리카 | 18.5% |

출처 : 2019 census;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US/RH1125219>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동포의 수는 2019년 2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2.2%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 | 2013 | 2015 | 2017 | 2019 | 전년비 증감율 (%) |
|----|-----------|-----------|-----------|-----------|-------------|
| 미국 | 2,091,432 | 2,238,989 | 2,492,252 | 2,546,982 | 2.2 |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Census(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점차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2030년에 이르게 되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2060년 인구구성 성장률(나이)]

| 특징 | 인구 | | | | | | 2016~2060 변화 | |
|---------|-------|-------|-------|-------|-------|-------|--------------|-------|
| | 2016 | 2020 | 2030 | 2040 | 2050 | 2060 | 수 | 비율 |
| 전체인구 | 323.1 | 332.6 | 355.1 | 373.5 | 388.9 | 404.5 | 81.4 | 25.2 |
| 18세미만 | 73.6 | 74.0 | 75.7 | 77.1 | 78.2 | 80.1 | 6.5 | 8.8 |
| 18~44세 | 116.0 | 119.2 | 125.0 | 126.4 | 129.6 | 132.7 | 16.7 | 14.4 |
| 45~64세 | 84.3 | 83.4 | 81.3 | 89.7 | 95.4 | 97.0 | 12.7 | 15.1 |
| 65세 이상 | 49.2 | 56.1 | 73.1 | 80.8 | 85.7 | 94.7 | 45.4 | 92.3 |
| 85세 이상 | 6.4 | 6.7 | 9.1 | 14.4 | 18.6 | 19.0 | 12.6 | 198.1 |
| 100세 이상 | 0.1 | 0.1 | 0.1 | 0.2 | 0.4 | 0.6 | 0.5 | 618.3 |

출처 :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20/demo/p25-1144.pdf>

또한 2016~2060년 Census 예측자료에서 아시아인(증가율 101%)과 히스패닉(증가율 93.5%)의 인구 구성 성장률이 현저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스닉 푸드(Ethnic food) 시장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현재 37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시장은 2023년까지 연간 성장률(CAGR)이 5.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내 시장에서 글로벌 푸드 중 멕시코 음식과 중국 음식이 강세를 보여 왔다. 미국 내 인구 구성원의 18.5%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계열 및 전체 5.9%의 아시아인 중 가장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계 음식이 세대에 걸쳐 정착하면서 손쉬운 접근성, 저렴한 가격을 정립시켰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태국, 한국, 베트남, 일본 음식 역시 미국 내에서 매니아층을 늘려 가고 있으며 과감하고 매운맛을 추구하는 소비자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Pew Research Center(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은 2000년 이후 72% 증가한 약 2,000만 명으로 아시아 인구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집단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 식료품 체인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아시아 음식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계 식료품 체인점인 H마트가 미국 12개 주에 걸쳐 66개 소까지 확장되었으며, 일본 식료품 체인점인 Mitsuwa(미쯔와)



가 텍사스에 신규 매장을 여는 등 미국 에스닉 푸드 시장(Ethnic food market)에서 아시아인 식품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지역 매장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에스닉 푸드 취급점을 찾으면서 해당 식품 산업에 더욱 큰 확장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최대 연령층을 차지하는 26세에서 40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식품의 소비 경험을 폭넓게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Chef's Pencil(셰프스 펜슬)의 Georgie Mihaila(조지 미하일라)는 "이러한 현상은 음식뿐만 아니라 분위기, 문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건강에 훨씬 더 민감하며 가벼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은 요리를 체험함으로써 접근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일

출처: ❶ Census Quick Facts -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US/PST045219> ❷ Demographic Turning Points for the US: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20 to 2060 -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20/demo/p25-1144.pdf> ❸ Most Popular Ethnic Foods in America - <https://www.voanews.com/usa/all-about-america/most-popular-ethnic-foods-america> ❹ Ethnic Foods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s (2019 - 2024) - https://www.reportlinker.com/p05815049/Ethnic-Foods-Market-Growth-Trends-and-Forecasts.html?utm_source=GNW ❺ The Quad: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ethnic markets as 99 Ranch Market comes to Westwood - <https://dailybruin.com/2020/08/24/the-quad-exploring-the-significance-of-ethnic-markets-as-99-ranch-market-comes-to-westwood> ❻ 재외동포 현황 총계 - http://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2030~2060년 인구구성 성장률(인종)]

| 특징 | 인구 | | | | | | 2016~2060 변화 | |
|-----------------------|---------|-------|---------|-------|---------|-------|--------------|-------|
| | 2016 | | 2030 | | 2060 |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수 | 비율 | | |
| 전체인구 | 323,128 | 100.0 | 355,101 | 100.0 | 404,483 | 100.0 | 81,355 | 25.2 |
| 백인 | 248,503 | 76.9 | 263,453 | 74.2 | 275,014 | 68.0 | 25,511 | 10.7 |
| 백인(앵글로아메리칸) | 197,970 | 61.3 | 197,992 | 55.8 | 179,162 | 44.3 | -18,808 | -9.5 |
| 흑인, 아프리카계 | 43,001 | 13.3 | 49,009 | 13.8 | 60,690 | 15.0 | 17,689 | 41.1 |
|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 4,055 | 1.3 | 4,663 | 1.3 | 5,583 | 1.4 | 1,528 | 37.7 |
| 아시안 | 18,319 | 5.7 | 24,394 | 6.9 | 36,815 | 9.1 | 18,496 | 101.0 |
| 하와이, 태평양 원주민(아시아계미국인) | 771 | 0.2 | 913 | 0.3 | 1,125 | 0.3 | 354 | 45.9 |
| 혼혈 | 8,480 | 2.6 | 12,669 | 3.6 | 25,255 | 6.2 | 16,775 | 197.8 |
| 히스패닉, 라틴아메리카 | 57,470 | 17.8 | 74,807 | 21.1 | 111,216 | 27.5 | 53,746 | 93.5 |
| 현지출생 인구 | 279,283 | 100.0 | 301,318 | 100.0 | 335,150 | 100.0 | 55,867 | 20.0 |
| 백인 | 222,942 | 79.8 | 232,638 | 77.2 | 236,955 | 70.7 | 14,013 | 6.3 |
| 백인(앵글로아메리칸) | 189,896 | 68.0 | 188,169 | 62.5 | 165,964 | 49.5 | -23,932 | -12.6 |
| 흑인, 아프리카계 | 38,345 | 13.7 | 43,013 | 14.3 | 51,195 | 15.3 | 12,850 | 33.5 |
|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 3,465 | 1.2 | 4,036 | 1.3 | 4,975 | 1.5 | 1,510 | 43.6 |
| 아시안 | 6,377 | 2.3 | 9,373 | 3.1 | 17,289 | 5.2 | 10,912 | 171.1 |
| 하와이, 태평양 원주민(아시아계미국인) | 576 | 0.2 | 686 | 0.2 | 866 | 0.3 | 290 | 50.3 |
| 혼혈 | 7,578 | 2.7 | 11,572 | 3.8 | 23,869 | 7.1 | 16,291 | 215.0 |
| 히스패닉, 라틴아메리카 | 37,819 | 13.5 | 51,466 | 17.1 | 83,971 | 25.1 | 46,152 | 122.0 |
| 타국출생 인구 | 43,845 | 100.0 | 53,783 | 100.0 | 69,333 | 100.0 | 25,499 | 58.1 |
| 백인 | 25,560 | 58.3 | 30,815 | 57.3 | 38,059 | 54.9 | 12,499 | 48.9 |
| 백인(앵글로아메리칸) | 8,073 | 18.4 | 9,823 | 18.3 | 13,198 | 19.0 | 5,125 | 63.5 |
| 흑인, 아프리카계 | 4,656 | 10.6 | 5,996 | 11.1 | 9,494 | 13.7 | 4,838 | 103.9 |
|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 | 590 | 1.3 | 627 | 1.2 | 609 | 0.9 | 19 | 3.2 |
| 아시안 | 11,942 | 27.2 | 15,021 | 27.9 | 19,525 | 28.2 | 7,583 | 63.5 |
| 하와이, 태평양 원주민(아시아계미국인) | 195 | 0.4 | 227 | 0.4 | 259 | 0.4 | 64 | 32.8 |
| 혼혈 | 902 | 2.1 | 1,097 | 2.0 | 1,386 | 2.0 | 484 | 53.7 |
| 히스패닉, 라틴아메리카 | 19,652 | 44.8 | 23,341 | 43.4 | 27,246 | 39.3 | 7,594 | 38.6 |

출처 :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20/demo/p25-1144.pdf>

단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과거 멕시코 및 중국 음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푸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였다. Georgie Mihaila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푸드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멕시코, 태국, 인도 등 다양한 에스닉 푸드를 제공하는 식당이 전국에 개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에스닉 푸드가 가격이 낮은 음식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Key Point

다양한 인종의 소비자들이 공존하는 미국시장에서 글로벌 푸드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소속인구 집단 증가에 따른 음식 소비의 증가 뿐 아니라 정부의 외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푸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2002년 태국은 글로벌 타이 요리 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타이 레스토랑을 증가시키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이 관련 집단의 수요 증가, 지원 프로그램, 의도적 홍보, 팬데믹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글로벌 푸드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현재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약 250만명을 넘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재외동포 수를 고려하여 볼 때 한국 음식역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선호도 재고를 노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